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 지역 우선구매 2배 늘었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우선구매 실적

합계·평균	2021 비율	2022		비율
		총 구매	우선구매	
	19.4	5조944	1조4656	28.8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7.6	20	8	38.8
우정사업정보센터	32.7	11	4	35.1
한전KPS	29	433	136	31.4
한국전력공사	19.6	4조6768	1조4025	30
국립전파연구원	22.1	57	15	26.3
한전KDN	25.3	614	160	26
한국전력거래소	25.8	515	133	2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	107	26	24.6
해양경찰교육원	16.4	57	9	1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2.6	35	4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5.4	274	27	9.9
한국콘텐츠진흥원	9.1	117	10	8.6
한국농어촌공사	6.7	574	40	7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6.8	247	16	6.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7	113	7	6
한국인터넷진흥원	7.3	850	34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6	154	3	1.9

(단위: %·억원)

(자료: 전남도)

이전기관 17곳 1조4656억원 28.8% 비중...한전 1조4025억 구매 10% 이하 aT 등 8곳 전년보다 감소...올 1조668억원 24.3% 목표

지난해 한국전력의 광주·전남 기업 우선구매 실적이 2배 가까이 늘면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7개 기관 지역 우선구매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17곳의 지난해 지역물품 우선구매 금액은 1조4656억원으로, 전체 구매금액 5조944억원의 28.8% 비중을 차지했다.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의 우선구매 금액은 전년보다 80.5%(6536억원) 급증했다. 총 구매금액도 1년 사이 21.4%(8986억원) 늘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17곳의 지역 우선구매 비중은 지난 2020년 23.8%에서 2021년 19.4%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증가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지역 구매 금액은 8834억원(2020년)에서 8120억원(2021년)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조4656억원으로 급증했다.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의 지역 우선구매 실적이 급증한 것은 한국전력의 우선구매가 1조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전 지역 우선구매액은 1조4025억원으로, 17개 기관 우선구매액의 95.7% 비중을 차지한다.

한전에 이어 지역 우선구매 금액은 한전KDN 160억원, 한전KPS 136억원, 한국전력거래소 133억원 등 순으로 나타나며 한전 그룹사 4곳이 나주 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6%(1조4454억원)에 달했다.

한전의 지역 구매액은 1년 새 86.5%(6505억원) 늘었다.

지역 우선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9.6%에서 지난해 30.0%로, 10.4%포인트나 늘었다. 이는 17개 기관 평균 비율 증가분 9.4% 포인트를 웃도는 수치다.

한전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특화 산업단지 '에너지밸리'에는 한전에 납품하는 전력 기자재 생산업체 등 모두 592개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투자협약을 마쳤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약속받은 금액은 2조8220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26.2% 비중인 7386억원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에 구축된 에너지밸리에는 현재 319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17개 기관 평균 우선구매 비중(28.8%)을 웃도는 기관은 한전과 농식품공무원교육원(38.8%), 우정사업정보센터(35.1%), 한전KPS(31.4%) 등 총 4곳이었다.

지역 우선구매 비중이 낮은 기관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1.9%), 한국인터넷진흥원(4.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6.0%),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6.7%), 한국농어촌공사(7.0%), 한국콘텐츠진흥원(8.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9.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0.0%), 해양경찰교육원(1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24.6%), 한국전력거래소(25.8%), 한전KDN(26.0%), 국립전파연구원(26.3%) 등 순이었다.

전년보다 지역 우선구매 비중이 줄어든 기관은 17곳 가운데 8곳으로 나타났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역 우선구매 비중과 금액 모두 2년 연속 감소했다.

aT의 지역 구매 비중은 2020년 43.8%(103억원)에서 2021년 35.4%(40억원), 지난해 9.9%(27억원) 등으로 줄었다.

사학연금(12.7%→3.6%→1.9%)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0.8%→8.7%→6.0%), 해양경찰교육원(17.0%→16.4%→15.0%)도 2년 연속 지역 우선구매 비중이 감소했다.

이외 인터넷진흥원(7.3%→4.0%), 콘텐츠진흥원(9.1%→8.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2.6%→10.0%),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6.8%→6.7%) 등도 1년 새 지역 구매 비중이 줄었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올해 지역물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24.3%로 정했다.

17개 기관은 올해 총 4조3953억원 규모 구매 계획을 세웠는데, 이중 24.3%인 1조668억원을 광주·전남 업체로부터 사들일 예정이다.

이는 지역물품 우선구매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결과에서 나온 권장 목표 24.1%보다 0.2%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나주 혁신도시 17개 기관의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지역 우선구매 비율은 24.1%로 집계됐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 재하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해야 하며, 매년 우선구매 계획과 전년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공개해야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여성 채용면접관 역량 강화교육

한전KDN은 지난 6일 서울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ESG경영 새내 여성 채용면접관' 교육을 열고 여성 관리자 30여 명이 면접관 역량을 갖추기 위한 모의 면접을 진행했다. 한전

KDN은 새내 전문 채용면접관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며 18명의 채용 전문 면접관을 양성했다.

<한전KDN 제공>

전력그룹사 5년간 20조원 재무구조 개선 나서

올해 3조3000억 절감 목표

자산 매각 등 재무 건전화 추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5년간 2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최악의 재무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최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발전자회사 포함 11개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경영 회의를 열고 재정 건전화 목표와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룹사 회의에는 한전과 한전KPS,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목표(3조3000억원)보다 167%가량 많은 5조5000억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중 전력구입비와 업무추진비를 줄여 절감한 비용은 3조1000억원, 신공법 개발과 탄력적인 계획예방정비 시행을 통해 줄인 투자비는 1조8000억원이었다.

이를 포함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한전 14조3000억원, 그룹사 5조7000억원)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으로 2조9000억원, 수익 개선으로 1조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 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각각 5조6000억원과 3조원을 더 아낀다는 목표다.

토지, 사옥 등 보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재검정 평가를 거쳐 7조4000억원의 자본 확충 성과도 노린다.

한전은 부동산 자산 매각을 통해 4600억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3조8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성과를 거뒀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올해도 자산 매각(1조7000억원), 사업 조정(1조원), 비용 절감(3000억원), 수익 확대(3000억원)를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사업 수출 동력을 강화하고 전력그룹사와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력사업 전주기 체계화를 추진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1조4천억원 투입

농지 지원사업 8600억 등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 매입이나 규모화 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에 모두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농지은행 사업은 지난 1990년 농지 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 농업인이나 이농, 자경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이거나 임차·수탁을 받아 농지가 필요한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입한 농지를 청년 창업농이나 후계농 등에게 빌려주는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을 비롯해 영농 규모를 늘리는 농지 규모화 사업 및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에 8577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집행한 사업비 7821억원보다 700억원 이상(9.7%) 늘었다.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영회생 지원사업에는 2900

억원이 편성됐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에 228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농지연금사업은 지난 2011년 첫 도입 이후 지난해 가입 건수 2만건을 돌파했다.

가입자 월평균 지급 연금액은 98만원이다.

올해는 청년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을 위한 선임대 후 매도사업,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신규 사업에 181억원이 배정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서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